

2019년 9월 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상승 온건한 통화정책,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미-중 무역협상 기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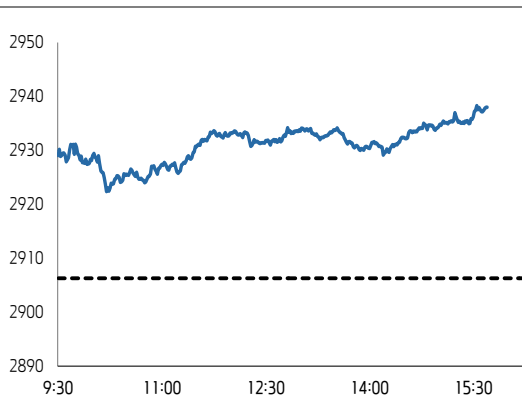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미 증시는 홍콩 이슈와 더불어 경제지표 개선 효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 되자 상승 출발. 더불어 라가르드 ECB 차기 총재와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 등 연준위원들이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한 점도 우호적.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와 금융주, 에너지주가 상승 주도(다우 +0.91%, 나스닥 +1.30%, S&P500 +1.08%, 러셀 2000 +0.85%)

미 증시는 ①연준 위원들 발언 ②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 ③미-중 무역분쟁 개선 ④홍콩 및 영국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 유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확장 지속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며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 더불어 최근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블라드 총재도 무역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50bp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바꾸는 등 연준 위원들이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 이 결과 CME는 FEDWatch를 통해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 확률을 상향 조정(4%→10%).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제조업경기 부진을 언급하는 등 무역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그러나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라며 주장하고,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대출 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이다” 라고 주장하며 최근 부각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 이런 가운데 월버로스 상무장관이 “화웨이에 대한 90 일간의 유예기간은 유효하다” 라고 발표. 또한 중국항공이 보잉 777 화물 비행기 6 대를 주문한다고 발표 하는 등 무역협상을 앞두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점도 주식시장에 우호적. 더불어 홍콩 행정 수반이 ‘송환법 철회’를 발표하며 격양된 홍콩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조짐이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 개선 효과. 여기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3 개월 추가 연기 법안을 가결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치 불확실성 또한 완화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 요인. 이 영향으로 미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988.53	+1.16	홍콩항셱	26,523.23	+3.90
KOSDAQ	629.31	+1.50	영국	7,311.26	+0.59
DOW	26,355.47	+0.91	독일	12,025.04	+0.96
NASDAQ	7,976.88	+1.30	프랑스	5,532.07	+1.21
S&P 500	2,937.78	+1.08	스페인	8,856.60	+0.54
상하이종합	2,957.41	+0.93	그리스	854.48	+0.07
일본	20,649.14	+0.12	이탈리아	21,737.80	+1.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9% 상승

마이크론(+4.05%)와 웨스턴디지털(+3.24%)는 미즈호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화웨이에 대한 90일 유예기간 연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 발표로 쉐컴(+2.62%), 브로드컴(+3.27%), NVIDIA(+2.80%), 자일링스(+1.88%), 스카이웍(+2.49%), 퀴보(+2.97%)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9% 상승 했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자 애플(+1.70%)가 상승 했다. 보잉(+0.60%)은 중국항공이 6대의 보잉 777 상업비행기 구매를 발표하자 상승했으며, 원리조트(+3.41%)은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코노코필립스(+2.42%), EOG리소스(+1.94%) 등도 상승 했다. JP모건(+1.21%), BOA(+1.63%), 씨티그룹(+1.36%)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역전이 해소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65%	대형 가치주 ETF(IVE)	+1.23%
에너지섹터 ETF(OIH)	+3.00%	중형 가치주 ETF(IWS)	+1.08%
소매업체 ETF(XRT)	+1.10%	소형 가치주 ETF(IWN)	+0.95%
금융섹터 ETF(XLF)	+0.98%	대형 성장주 ETF(VUG)	+1.20%
기술섹터 ETF(XLK)	+1.71%	중형 성장주 ETF(IWP)	+1.0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9%	소형 성장주 ETF(IWO)	+0.75%
인터넷업체 ETF(FDN)	+1.17%	배당주 ETF(DVY)	+1.14%
리츠업체 ETF(XLRE)	+0.83%	신흥국 고배당 ETF(DEM)	+1.62%
주택건설업체 ETF(XHB)	+1.3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8%
바이오섹터 ETF(IBB)	+0.06%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07%	하이일드 ETF(JNK)	+0.23%
곡물 ETF(DBA)	+0.40%	물가연동채 ETF(TIP)	+0.25%
반도체 ETF(SMH)	+2.95%	Long/short ETF(BTAL)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5.60	+1.39%	+3.82%	-1.56%
소재	354.95	+1.08%	+2.92%	+0.61%
산업재	635.40	+1.30%	+3.15%	+0.85%
경기소비재	945.05	+0.86%	+2.51%	+2.62%
필수소비재	630.18	+0.92%	+2.21%	+5.32%
헬스케어	1,040.31	+0.01%	+1.03%	-0.08%
금융	445.49	+1.08%	+2.78%	-0.86%
IT	1,399.16	+1.71%	+2.27%	+3.56%
커뮤니케이션	167.52	+1.61%	+2.35%	+1.94%
유틸리티	321.98	+0.15%	+2.34%	+5.78%
부동산	247.69	+0.85%	+3.35%	+6.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2,000pt 도전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4% MSCI 신흥 지수 ETF 는 1.6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778 계약 순매수 한 가운데 0.95pt 상승한 262.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04.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최근 시장에 불거졌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자 상승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온건한 통화정책 발언인데 전일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일부 반영이 되었으나, 여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 한 점을 감안 오늘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또한 개선된 경제지표와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 해소 등을 통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를 높이는 여러 내용 또한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인다. 이 결과 마이크론(+4.05%)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이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9%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이다. 특히 마이크론의 경우는 미즈호가 긍정적인 공급망을 기대한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시기가 연장되고, 홍콩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러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달러/원 환율이 1,200 원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매물을 내놓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또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2,000pt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무역수지 감소

7 월 미국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전월 대비 2.7% 감소한 539.9 억 달러로 발표되었다. 특히 수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으나, 수입이 0.1%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대 중국 수입액은 전월 대비 1.9% 감소 했으며 수출 또한 2.9% 감소하는 등 중국향 수출입은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급등 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중국과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수요 증가 기대 또한 긍정적이었다. 더불어 홍콩과 영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며, 미-중 무역협상 관련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된 점도 상승폭 확대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노딜 브렉시트 완화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 부각,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시간을 3 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최근 금리동결을 주장했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경기 확장이 지속되도록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하락 했다. 다만,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 확장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낙폭은 제한 되었다. 특히 장기물이 상승 전환하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가 이어졌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21% 철근도 1.43%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26	+4.30	+2.42	Dollar Index	98.452	-0.55	+0.25
브렌트유	60.70	+4.19	+1.28	EUR/USD	1.1028	+0.49	-0.45
금	1,560.40	+0.29	+0.55	USD/JPY	106.36	+0.40	+0.23
은	19,547	+1.61	+6.83	GBP/USD	1.2228	+1.22	+0.13
알루미늄	1,775.00	+1.25	+1.66	USD/CHF	0.9811	-0.61	-0.07
전기동	5,748.00	+2.46	+1.02	AUD/USD	0.6795	+0.52	+0.91
아연	2,310.00	+4.76	+2.35	USD/CAD	1.3234	-0.77	-0.54
옥수수	358.50	-0.69	-2.12	USD/BRL	4.0977	-1.69	-1.69
밀	460.75	+1.60	-3.36	USD/CNH	7.1469	-0.43	-0.31
대두	875.50	+0.81	+1.89	USD/KRW	1208.20	-0.61	-0.47
커피	96.60	+1.10	-0.57	USD/KRW NDF1M	1204.30	-0.50	-0.6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454	-0.34	-2.55	스페인	0.144	+3.90	+8.40
한국	1.335	+1.50	+9.40	포르투갈	0.155	+3.50	+6.40
일본	-0.277	+0.70	-0.20	그리스	1.556	-4.60	-15.80
독일	-0.674	+3.20	+4.00	이탈리아	0.806	-6.60	-23.60